

제12차 정기총회 및 연수회 강연 초록

食生活과 水産食品

李 應昊(釜山水産大學 食品工學科 教授)

遠洋漁業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沿近海漁業, 養殖漁業, 內水面漁業으로 水産食品을 供給한다고 보고, 앞으로의 人口增加, 需要增大 등을 고려하면 水産食品의 供給問題는 展望이 밝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2000年代 우리나라 人口를 5천만으로 보고 1人1日當 水産食品 供給量을 94g, 폐기율 55%로 하여 계산해 보면 3,800천 M/T 이 필요한 셈이 된다.

1984漁獲量(遠洋生産量 除外)이 2,200천M/T이므로 1,600천M/T을 더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어떻게 보충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對策이 없는 것이 現實일 것이다. 南極海의 크릴(krill), 지금까지 利用하지 못하고 있던 魚種의 探索, 探海魚의 利用 등 未開發資源을 우선 들 수 있지만, 어느 것이나 막대한 開發經費가 필요한 것이다.

어쨌든 沿近海資源을 보다 有效하게 利用하기 위해서는 生鮮狀態로 流通시키는데는 장애가 많기 때문에, 加工處理에 의한 利用率의 向上이 무엇보다 중요한 課題인 것이다. 아울러 加工技術의 新規開發도 시급히 要望되는 時期라고 判斷된다.

우리들의 食生活을 充足하기 위한 食品의 組合

에는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傳統의 食生活을 포함하여, 國內에서 自給하기 쉬운 食糧資源을 中心으로만 食生活을 形成하는데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食生活의 供給面에 대해서는, 今後의 消費構造에 對應한 食糧의 生産과 供給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食糧資源의 開發과 利用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食生活은 國民의 만족감을 充足시키면서, 營養, 保健面과의 均衡을 유지하고, 될수 있는대로 資源的으로는 不安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面으로 보면 쌀과 水産物의 組合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食生活의 重要한 基本Pattern의 하나가 될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食生活問題는 私生活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여, 종합적인 見地에서 바람직한 食生活이라고 해도 規制와 같은 方法보다는 될수 있는대로 많은 情報를 提供함으로써 國民各者가 스스로 이를 實現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政府의 役割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영양학과 커리큘럼에 관한 건의

(대한 영양사회회장·김 병구)

영양사를 배출하는 식품영양학과와 커리큘럼은 무엇보다 영양사의 역할과 활동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강조되어야 할 영양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영양사의 교육커리큘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급식관리자로서의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영양사의 대부분이 산업체, 국민학교, 병원등 집단급식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영양사 역할의 대부분이 급식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 급식관리자의 역할이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계획된 식단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식품관리, 구매관리, 직업관리, 위생관리와 종업원에 대한 교육, 급식부의 경영분석등 급식전반을 관리 책임지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무영양사의 급식관리자로서의 능력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일부 급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영주로부터 영양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낳게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각 기업체의 노사분규 여파로 노동집약적인 급식부를 위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현 직영체제에서 일하는 영양사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향후 영양사의 취업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위탁 경영업체에 못지 않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며, 급식서비스의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급식부분의 관리 및 경영기술의 습득은 영양사의 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문지식이나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체급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대량조리와 이에 대한 실습교육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지적하고 싶다.

일본의 경우 영양사 양성시설 기준이 반드시 일정면적 이상의 '집단급식 실습실'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소규모 조리실습실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량조리에 대한 실험을 거친 recipe작성및 serving size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무를 맡게되므로 식단작성업무마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예가 없지 않다.

2. '영양의 지도를 담당하는 자'로서의 역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에 관한 관심을 점차 증대될 것이며, 미래 사회에서는 전문적인 정보를 다루는 직종이 가장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를 일반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술로 바꿀수 있는' 영양사들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는 점차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영양사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여전히 영양사는 '식단을 짜는 사람' 내지는 '급식관리자' 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급식 경영에 있어서도 효율화·합리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미 선진제국에서 보편화된 급식관리의 집중화(※ 급식센터, 위탁경영 등으로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집단급식소(특히 기업)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수는 미미하다.) 추세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취업 영양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체급식 영양사들의 거취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영양사들은 더 이상 급식관리자로서의 역할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새로운 역할전환및 확대로 눈을 돌려야할 때가 왔으며, 각각의 환경에서 영양사가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이미 간호원의 경우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의 확산과 더불어서 기존의 산업장및 국민학교에서의 가장 안이했던 역할에서, 탈피하여 산업장및 국민학교에서의 1차보건의료의 담당전문 인력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간호원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수행해야할 새로운 역할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산업장 및 학교에서의 1차 보건의료의 중요성과 이를 전담할 인력으로 간호원이 가장 타당함을 주장하고,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양사들도 산업체에서 구식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식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일반인들에 관한 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서의 지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며, 국민학교의 경우 아동의 영양교육및 지도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좀더 중점을 두어, 언젠가 구식관리인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에 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에서는 보건의료전문인으로

서의 영양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또 영양의 지도에 관한 기술과 이에 관한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병원에서도 의사, 간호원과 같이 치료팀의 일원이 되어 임상 영양사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고서는 타 직종과 대등한 위치에 서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과목과 의료종사자로서의 기초 의학 과목의 충실이 요구된다.

3. 기 타

1) 실습교육의 강화

일본의 영양사교육 커리큘럼에는 반드시 교외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여 2년제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최소 450 시간의 실습을 기친자에게 dietetic technician의 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습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계속교육의 기회마련을 위한 노력

대부분의 전문인력 특히 보건의료전문인력의 교육제도 단일화에 대한 요구 및 고학력화 추세는 우리 영양사에게도 곧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

다. 이미 국민학교 교사의 4년제 교육을 비롯하여, 간호원,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들도 4년제 교육을 주장하고 있고, 약사들은 6년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보건의료전문직종 중 영양사의 학력이 가장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4년 대학의 반발과 차별화 요구, 직장에서의 3년제와 4년제 출신의 갈등은 이미 간호원의 경우에서 노출된 바를 보아도 잘 예견할 수 있는 문제로, 이는 영양사회뿐만 아니라 영양사를 배출하는 학교에도 공동의 해결 과제인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간호원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통신대학의 간호학과 개설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 이처럼 영양사계에서도 학계와 더불어 영양사의 위치와 신분상승을 위한 계속교육의 기회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양사를 배출하는 학계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새로운 영양사 수요의 창출을 위한 연구와 영양사의 역할에 관한 방향제시 및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영양사의 교육과 배출이며 이를 위하여 협회와 학계의 긴밀한 상호관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